지상진료실

Sublingual Varicosities (설하 정맥류)

서울치대 구강진단학교실

이 승 우 교수

혀의 하면에 반구형의 작고 둥근 보랏빛의 돌출이 60세 이상의 68%에서 발견되는데 확장된 정맥위로 체인의 형태를 보인다. 이를 "lingual phlebectasias", "sublingual varices" 또는 "lingual varicosities"라고도 하며, 흔히 "cavier tongue"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66세여자) 설하정맥들의 측방으로부터 혀의 양측면 까지 나타난다. 구강저에 나타날 때는 설하선의 배출구 부근에 나타난다.

30세에서 59세까지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폐순환계질환과 sublingual varicosities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다리나 혀 varicosities가 연령에 따라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연령에서 이 양 질환에 매우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한편 lingual varicosities는 공장(jujunum)이나 고환에 이환되는 multiple phlebectasia의 일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lingual varicosities는 주로 탄성 섬유의 변성에 의해 이차적으로 조직의 지지가 약해져서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